



“더불어 사는 따뜻한 목포 만들기 힘쓰겠다”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

진실·질서·화합 등 3대 이념 바탕
집수리 등 소외이웃 베품목 ‘든든’
제주항공 참사 유족 지원 나서기도
김용배 회장 “나눔문화 확산 지속”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는 지난 한해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하고 나눔 활동을 지속했다. 사진은 최근 목포 상동에서 펼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현장.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 제공〉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목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가 지난 한 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누비며 펼친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이 지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7일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협의회는 최근 ‘행복드림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 신안 압해읍과 목포 상동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샷시 교체와 목공사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다.

또 지난달 31일 열린 새해맞이 타종식 현장에서는 강추위 속에서도 1천500인분의 떡국을 직접 끓여 시민들과 나누며 훈훈한 정을 전했다.

앞서 여름철에는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보양식을 대접하고, 추석 명절에는 취약계층에게 한과와 쌀, 라면을 전달하는 등 절기마다 소외된 이웃을 살뜰히 챙겼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은 국민을 비통하게 했던 12·29 무안공항 제

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목포역 광장과 무안공항 등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후원 물품을 정리하는 등 묵묵히 슬픔을 함께 나눴다.

지역 축제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유달산 봄축제 현장에서는 안내 도우미와 향토음식 부스 운영을 자처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밖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공 체험과 환경 정화 활동, 물 절약 가두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등을 꾸준히 전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지난달 초 열린 ‘한마음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유공 회원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6년 더 큰 도약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용배 회장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1년을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생활 속 바른 생활 실천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광주 북구의회, 새해 효령노인타운 배식봉사

광주 북구의회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와 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북구의회는 7일 “최무송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한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오월 영령들의 뜻을 기렸다”고 밝혔다.

참배를 마친 의원들은 효령노인복지타운으로 이동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해 점심 식사를 직접 챙기며 새해 안부를 나눴다. 북구의회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의 출발을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은 “2026년을 북구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노인회 전남연합회, 성금 1억7천500만원 기탁

전남도는 7일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7천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는 이날 무안 스키아레딩컨벤션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기탁식도 진행했다.

기탁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을 비롯한 22개 시·군 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시·군 지회와 주요 경로당 등 1천600개소에 ‘이웃사랑, 나누면 행복’ 모금함을 설치,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이다. 22개 시·군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은 “노인회원들께서 모아준 따뜻한 정성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회는 ‘어려운 노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함평 관덕정 회원들 ‘희망2026나눔캠페인’ 동참

함평군은 7일 “전날 함평 관덕정 회원들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현금 50만8천1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관덕정은 활을 쏘아 표적을 맞춰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 전통 국궁을 수련하는 곳으로, 이번 기부는 지난해 관덕정에서 물기(한 번 활을 당긴 후 5개의 화살을 모두 과녁에 맞는 것) 수련에 참여한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마련됐다.

정연진 함평 관덕정 사두는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셨으면 한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들이 국궁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담양군 이장연합회,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 기탁

(재)담양장학회는 7일 “전날 담양군 이장연합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병오년 새해 담양군에 전해진 ‘제1호 장학금’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담양군 12개 읍·면 이장들로 구성된 담양군 이장연합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9년부터 현재까지 3천10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다.

올해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담양군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기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

정철원 이사장은 “매년 변함없이 소중한 마



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었다”며 “귀한 정성이 담긴 장학금이 우리 지역 인재들의 꿈 실현과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주)온누리건축, 장흥나눔복지재단에 이웃돕기 성금

(재)장흥나눔복지재단은 “최근 (주)온누리건축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온누리건축은 지역자활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위훈 온누리건축 대표는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나눔복지재단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온누리건축에 감사드린다”며



“후원받은 기부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해남소방, 어불도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해남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 6일 교통·의료·안전 인프라 접근이 취약한 어불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한파와 강풍, 해상 기상 악화 등으로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찰대는 어불도 마을회관·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화재 위험요인 점검 ▲가스·전기 사용 실태 확인 ▲가스자동차단기 배부 및 설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한 겨울철 낙상 사고와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요령과 대피 방법을 안내하며 주민 스스로 안전



을 지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박춘천 소방서장은 “도서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안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안전순찰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양관운 AF인베스트먼트 대표

광주 사랑의열매에 1억원 기탁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사업가이자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양관운(사진) AF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근 1억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광주 지역 제9호 회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지원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나주 출신인 양 대표는 2002년 전남대 전자공학 학과를 졸업했으며, 금융투자회사인 AF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양관은 대표 “기업의 성장만큼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성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산구의회는 “최근 윤혜영(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제고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4개 분야(복지·경제·환경·교통) 14개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정책 추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4년여간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혜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준 시민들과 이를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준 집행부와의 협력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육근 기자

정대성 광주대 교수 ‘KRX 우수 논문상’



광주대학교는 7일 “정대성(사진) 경영학과 교수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성과와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기반 CoVaR 분석’ 논문으로 2025 KRX 증권과생상품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거래소가 증권과생상품시장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로, 정 교수는 연구의 우수성과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인정받았다.

해당 논문은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포함하고 CoVaR 분석을 활용해 가상자산이 포트폴리오 성과와 극단적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특히 가상자산과 전통 자산 간의 꼬리위험 전이 구조를 정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위험 관리 접근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정대성 교수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제도권 금융시장 논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 간 연계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욱 기자

본사손님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

부음

▲강성추씨 별세, 한국고(KIA 타이거즈 육성팀 프로)씨 부부상=발인 9일(금) 광주 VIP장례타운 VIP 20호실 (062-521-4444).